

제목: "신앙의 전통을 지키라"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5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며 믿음의 전통을 지키라고 합니다. 전통이라고 이야기 할 때에는 그들에게 들려준 귀한 메시지와 생활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말씀과 모습이 전해졌습니까? 또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 _____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요 _____라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3. 부르심과 _____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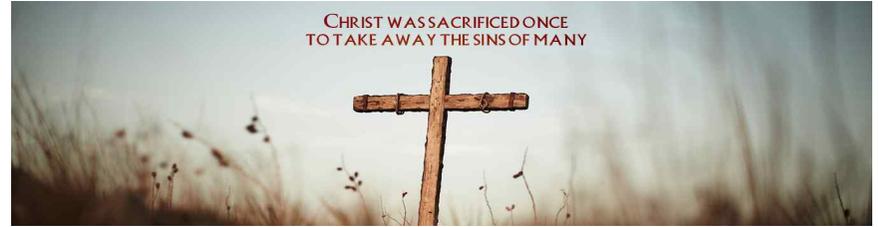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7월 24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5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2 Thessalonians 2: 13-15 신약 334 페이지 Presider
- 말씀 "신앙의 전통을 지키라"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100도 더위)

무더위와 싸웠던 한 주였다. 어찌나 더운지 한 이틀 동안은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없었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몇 번을 깨어났는지 모른다. 이유는 습도였다. 여름에 비교적 건조하던 오레곤도 이제는 습도를 피하지 못하고 여름이 되면 제법 땀이 흐른다.

그런데 동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이다.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쉽게 흐른다. 끈적끈적하다. 움직이기에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에어컨을 찾는다. 그런데 하루 종일 에어컨 앞에 있다가 보면 오히려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 몸에 좋지 않은 증상이 나타난다. 찬 공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름을 넘기기를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름다움이 있다. 습도가 낮은 곳에는 온도가 높지만 사막의 아름다움과 높은 나무들의 아름다움이 있고, 습도가 높은 지역은 꽃나무들의 아름다움이 있다. 나름대로 어디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더움이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짜증과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사를 간다고 그 불평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동부에 사는 친구 중 유난히 여름 습도가 좋다고 하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으나 그 친구의 마음에 여름의 높은 습도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살던 마음의 소리였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깨닫는다.

분명 더운 날은 참기 어렵다. 그러나 싸울 정도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것을 전투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할 자연의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운 날이 겹칠 때에 과일은 맛있게 익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공중으로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0절)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신 이 세계는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4계절을 보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감사하며 그것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 때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은혜의 고백이 나오며 미래의 큰 기대와 하나님이 주실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덥다. 하지만 가을이 곧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더웠던 지난여름의 불편함을 전부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을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